

416인권선언 풀뿌리토론 프로그램 기획안

1. 풀뿌리 토론의 위상과 성격

- '4.16인권선언운동'의 주요 키워드인 '존엄', '안전', '인권', '선언'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
- '달라져야 할 것'에 대해 다양한 사회구성원과 수평적인 논의를 통해 확산하고, 촉발하는 계기
- 토론을 통해 선언문에 들어갈 내용을 풍부하게 만드는 자리.

2. 토론 프로그램 구체적 목표

- 4.16을 계기로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고 할 때, 무엇이 달라져야 하고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지혜를 모은다.
 - 각자에게 남아있는 '4.16'의 의미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 공통의 경험으로 언어화할 수 있는 해석의 틀을 버린다.
 - 각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토론하면서 인간의 존엄에 대한 서로의 감각을 점검한다.
- '4.16인권선언'이 지향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권리의 언어로 엮어낼 수 있도록 한다.
- '4.16인권선언'의 주요 키워드인 '존엄', '안전', '인권', '선언'을 각자의 삶의 조건과 결부 지어 의미를 만들어내고, 이후 행동의 아이디어를 모색하기 위한 자극과 영감을 얻는다.

3. 토론 프로그램 흐름

활동	내용	비고	준비물	시간
추모의 시간	희생자와 피해자를 추모하고 애도하는 묵상			3분
4.16인권선언 운동 소개	4.16인권선언 운동의 취지를 소개하고 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시간		ppt	10분

풀뿌리 토론 진행과정에 대한 간략한 안내	토론수칙 안내			토론수칙	5분
영상 상영	“세월호 참사의 경험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을 다시 선언하자”			영상파일	10분
토론	총 4개의 질문을 가지고 진행한다. 모둠별 인원은 6- 8명 정도로. (각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기 위함)	1)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1년간 나를 지배한 느낌/감정은 oo이다.” (포스트잇에 각자 키워드 적기)	개인적 이야기로 시작하기. 그 감정의 기원을 찾는 작업이 자연스럽게 2번 질문과 이어질 수 있음.	포스트잇, 화이트보드/마커, 날말카드	80분
		2) “참사 이후 현재까지의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관련하여 기억에 남는 장면/현상/문제는 oo이다.” => 나온 것들을 화이트보드/전지 등에 붙인 다음 비슷한 것들끼리 유형화할 수 있음. (“가장 공통적으로 나온 주제 하나와 다른 모둠에서 안 나왔을 것 같은 주제 하나를 꼽아달라” 식으로 발문을 줄 수도 있음)	세월호가 단순 사고가 아닌 인권침해의 문제임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을 찾고 어떤 가치가 부재했는지를 살피기.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묻지 않은 것은 문제의 경중을 위계화하거나 부정적인 문제로만 초점 맞추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예컨대 “자원봉사자”들을 적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이 또한 인권선언에 어떻게 녹일 수 있을지 고민해볼 수 있다는 점 감안)		

	<p>2번 문항까지는 모둠별로 진행하고 3번 문항에 대한 답은 낱말카드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화이트보드 등에 붙인 다음 진행자가 전체로 진행할 수 있음.</p>	<p>3) “위에서 나온 문제를 인권적으로(혹은 인권감수성에 바탕하여) 풀어나가기 위한 방법은? 떠오르는 내용을 다음의 낱말카드에 모둠별로 채운 후 전체로 공유한다. (낱말카드 예: “~하는 마음” / “~없애기” / “~하는 태도” / “~만들기” / “~함께 하기” 등)</p> <p>진행자는 낱말카드를 전체 참여자들과 공유하면서, 각 내용들에 대해 그것을 권리로 이름 붙인다면 뭐라고 부를 수 있을지 묻고 살피며 진행한다. 기성의 권리 언어가 아니라 자기 입에 붙을 수 있는 좀 더 생생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 안내하기.</p>	<p>권리카드의 경우 상상력을 킁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점(애초 그림에 의도된 권리 항목이 416 인권선언에 비해 부족할 수 있다는 점, ‘인권’이나 ‘권리’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참여자들의 경우)을 감안한 수정안. 낱말카드로 가면 꼭 무슨 무슨 권리로 말하지 않고서도 얘기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라는 질문이 정책 제안으로 한정되기 쉽다는 점을 피하기 위한 측면도 있음. 낱말카드로 갈 경우 진행자가 참여자들 이야기를 다시 권리 언어로 엮어내야 하는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음. 여러 개의 낱말 형식을 통해 이 중 인권선언에 들어갈 구체적 권리에 대한 내용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도 나올 수 있고, 이 자리가 끝난 뒤 앞으로 무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려 볼 수도 있겠다. 취지.</p> <p>참여자들과 권리별 목록(416인권실태조사 보고서)을 함께 보면서 낱말카드에 연결될 법한 권리들을 찾을 수도 있겠다.</p>		
--	--	--	--	--	--

마무리	풀뿌리 토론 권리 풍선 띄우기	토론 내용을 돌아보며 각자에게 중요하게 남은 권리를 적어 풍선으로 띄우기 / 자신에게 남은 질문이나 고민의 씨앗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	------------------	---	--	--

4. 토론 수칙

5. 진행자를 위한 팁

- 20일에 자신이 참여자로 경험해본 것을 바탕으로 나중에 실제 진행을 할 때 어떤 키워드/문장/권리 내용들이 주로 나올지에 대한 감을 잡는다. (20일 토론프로그램 진행 후 나온 키워드들 기록으로 남겨서 공유하기)
- '나 괜찮은 시민인 줄 알았는데... - 재난사고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인권교육센터 들 '괜찮은 줄...' 모임 작성)를 진행자와 참여자 모두 한번씩 읽어보면 참고가 될 것 같다.
- 416인권실태조사팀에서 작성한 권리 목록 참고하기.(곧 초안 나올 예정이라고 들었음)